

과목코드 111111 대상 3+n학년 1, 2, ... , n반

문항수 선다형 4 문제지 전체 2면

- 문제지의 인쇄 상태와 매수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 학년, 반, 번호, 과목 코드 등을 정확히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 이 시험 문제지의 저작권은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 복제 또는 전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문제지의 인쇄 상태와 매수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 학년, 반, 번호, 과목코드, 과목명, 고사명, 시험일 등을 시험실에 게시한 '시험 시 유의 사항'에 따라 정확히 표기하십시오
- 답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십시오
 - 선택형: (40) 문항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골라 OMR 답안지 해당란에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와 같이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투표에 기권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는 법이나 제도로 명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행사는 아니다. 권리를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이다. 바로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모든 사람이 기권 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2022년 12월, 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치러진 총선의 투표 참여율은 11.2퍼센트에 그쳤다. 이로 인해 튀니지가 채택한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졌고 민주주의의 정당성도 훼손되었다. 선거에서는 투표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서 기권한다면,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사회 전반에 반영하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린다.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투표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투표 결과를 따라야 한다.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기권을 하면 결국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사실상 없다고 하지만,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투표에 기권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왜 투표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투표를 하지 않은 이들도 투표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를 바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기권이라는 표면적인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투표 한 번으로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①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되어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미국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는 말러 교수는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다양한 계층에서 투표를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투표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부 계층이 아닌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투표를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기권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권은 사회 변화 의지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지만 권리가 될 수는 없다.
- ② 기권을 인정하는 모든 국가가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투표의 효용이 낮다는 인식은 기권을 선택하게 하는 매력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 ④ 높은 투표율은 정부가 사회의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르비 국어

과목코드 111111 대상 3+n학년 1, 2, ... , n반

문항수 선다형 4 문제지 전체 2면

⑤ 투표할 권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데에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권리이다.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기권은 유권자들이 갖는 정치적 불만을 반영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기권이 증가하는 이유는 기존 연구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회경제적 변수나 선거 참여의 비용과 정치적 효용 등의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 정당체계의 특성과 지역주의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불만을 느끼는 유권자들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 기권의 유형은 '무차별에 의한 기권'과 '소외에 의한 기권'으로 나뉜다. 무차별에 의한 기권은 후보자 간에 정책적 차이가 부재하여 투표 결과가 투표자의 효용과 무관해지는 경우에 생기는 반면, 소외에 의한 기권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기존 정당체계 내에서 적절히 대표될 수 없다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정치적 불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나) 최근 A국의 B시에서는 시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되었다. 개표 결과 전체 득표 중 후보 갑이 약 49%, 후보 을이 약 47%를 득표하여 후보 갑이 당선되었고, 기권자 수는 약 320만명으로 36%를 기록했다. 선거 직후 기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응답자 중 C 집단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어도 나에게 이득이 클 것 같지 않았다'라고 답했고, D 집단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어도 내 견해가 대변될 것 같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단, 같은 집단 내의 사람들은 모두 정치적 견해와 이익 관심이 같다고 가정한다.)

- ① C 집단의 기권은 윗글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C 집단은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어도 얻는 효용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무차별에 의한 기권을 한 것이겠군.
- ③ C 집단과 D 집단 모두 투표에서 오는 효용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판단해 투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두 집단의 기권이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지 않더라도 그것이 '투표하지 않을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지는 않겠군.
- ⑤ 윗글의 글쓴이는 후보 갑의 득표율이 과반에 못 미치므로 갑이 시민을 대표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겠군.

- ① 윗글은 정치적 책임을 정당 체계를 무시하고 오직 유권자에게서만 찾고 있다.
- ② 윗글은 기권의 원인을 사회적 상황을 무시하고 유권자 개인에게서만 찾는다는 한계가 있다.
- ③ 윗글은 투표 참여의 결과가 투표자에게 항상 효용을 가져다 준다는 부적절한 가정을 하고 있다.
- ④ 윗글은 정당 선택이 제약된 상황에서 투표하는 것이 유의미한 선택이 아닐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윗글은 기권이 좌절된 기대의 결과임을 넘어 적극적인 정치적 불만 표현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4.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견(所見)
- ② 입장(立場)
- ③ 의사(意思)
- ④ 사상(思想)
- ⑤ 견해(見解)

3. <보기>의 입장에서 윗글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투표 참여의 문제를 단순히 비용의 측면에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사회적 균열과 같은 이유로 인해 사실상 정당 선택이